



12월 국내광고시장 전반적 약세 예상

12월 국내 광고경기는 11월 대비 광고시장 경기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예측지수(KAI)를 조사한 결과, 12월 종합 KAI가 88.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내수소비는 서비스, 광고업,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 나타내고 있다. 소비심리도 다소나마 전월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방어적인 자세로 마케팅비용 집행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측면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KOBACO 측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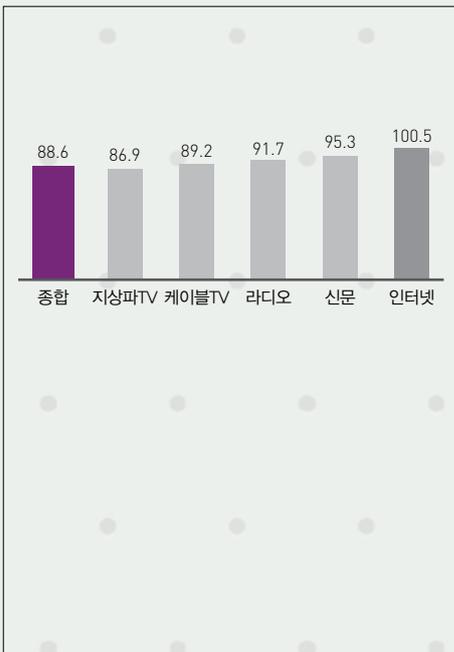
월별 KAI가 100을 넘을 경우 광고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은 광고비 감소가 예측됨을 의미한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86.9), 케이블TV(89.2), 라디오(91.7), 신문(95.3), 인터넷(100.5) 등으로 조사됐으며, 여행 및 레저(140.5), 출판 및 교육(139.4), 화장품 및 보건용품(134.6) 등의 업종에서 광고비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수송기기(56.2), 기초산업재(58.8) 등의 업종에서는 광고비 감소가 예상됐다.

광고경기예측지수조사(KAI :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KOBACO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광고산업통계정보시스템(<http://adstat.kobaco.co.kr>)이나, 스마트폰에서 '광고경기예측지수(KAI)'를 다운받으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K A A**

〈표 1〉 매체별 12월 광고경기 전망



〈표 2〉 업종별 12월 광고경기 전망



KAI, 금융업종 12월 광고시장서 약세 예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가 국내 광고시장의 경기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 발표하고 있는 '광고경기 예측지수(KAI ; Korea Advertising Index)' 특별판으로 '금융업종 특별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월례발표와 별도로 발표되는 업종별 특별분석은 기존 KAI와 달리 특정 업종에 대해 익월 광고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3개년에 걸친 시계열분석과 소비자 매체 이용형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고시장 예측과 분석에 대한 전문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 특별분석은 연금저축과 주거래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파이낸셜 노마드 현상과 모바일 결제, 클라우드 편

딩으로 대표되는 핀테크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금융 및 보험 업종이다.

국내 대표적인 22개 금융 및 보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12월 KAI는 78.8로 전월대비 광고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77.9), 케이블(92.5), 라디오(89.8), 신문(89.8), 인터넷(81.0)으로 대부분의 매체에서 약세가 전망되었다. KOBACO 관계자는 "12월중 발간된 MCR 자료에서는 어떤 광고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뤄질 것이라며, 소비자의 행동양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MCR 자료를 활용한 분석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K A A**

